



## 승률 '99.8%' 블랙록, 다음 목표는 이더리움 현물 ETF

2024.01.17 수요일

빗썸 이지코노미

2023년 6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블랙록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해 크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없었고 그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3년 6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자 그간 이 ETF 승인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신청에 나섰다기 때문도 있지만 이 회사의 ETF 승인 신청 승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블랙록은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기 전까지 ETF 승인 전적이 576건 575승이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 합치면 577건 576승이 된 것인데 이는 승률로 따지면 99.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블랙록이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적합성이 충분히 검증되면 그때서야 ETF를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블랙록이 같은 과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고 이제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래리 핑크 블랙록 CEO(최고경영자)는 1월 12일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더리움 ETF 보유 가치를 알고 있다"며 "이더리움 현물 ETF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 인터뷰는 블랙록이 ETF를 신청하면 통과되지 않은 적이 한번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블랙록이 실제로 이더리

움 현물 ETF 신청에 나선다면 시장은 이 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을 때처럼 또 다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은 어떤 이유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자신 있게 거론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핑크 CEO나 블랙록 핵심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여러 전문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마켓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록의 리서치 총괄 루카스 아우투무로는 미디움에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문건에서 '비트코인 현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또는 시세 조작이 CME(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도 유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논리는 이더리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 온체인 분석 플랫폼 샌티멘트는 지난 1월 12일 X(전 트위터)에서 진행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기'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참여자의 약 52.4%가 '2024년 연말에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나머지 26.5%는 최소 2025년은 와야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11.3%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커뮤니티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해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나 가상자산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

습니다.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넥소의 공동 설립자 안토니 트렌체프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투자자들은 차세대 대형 ETF 승인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는 "하나의 상품이 승인되면 또 다른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이더리움 현물 ETF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SEC는 이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 현황에 대한 소식을 받 빠르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ETF와 관련한 특성을 알기 쉽게 잘 정리해 유명세를 탄 블룸버그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와 제임스 세이파트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에릭 발추나스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70%로 높게 전망했습니다. 제임스 세이파트는 최근 세미나에서 "CFTC는 이더리움을 이미 상품으로 규정했는데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본다면 CFTC의 판단과 충돌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SEC가 이더리움을 선불리 증권으로 간주하면 법정에서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보는 기존 관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JP모건 소속 애널리스트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로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려면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50% 이하"라며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50% 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에 승인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SEC가 2024년 5월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21세어즈, 반에크, 해시덱스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최종 승인 심사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최종 승인 심사가 다가온 ETF 상품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더리움도 같은 과정으로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바람대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올해 안으로 승인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없으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 투자 여부, 종목 선택, 투자 시기 등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주)빗썸코리아에 있으며,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